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6.11.(목) 조간 < 배포즉시 보도가능 >

“현장에서 답을 찾다” 부산중기청, 제34회 이엉포럼 개최

- 부산지역 대표 중소기업 소통 플랫폼인「제34회 이엉포럼」개최(6.10)
- 중진공 정책자금 소개 및 현장의 애로·규제 건의 간담회 가져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과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 이엉포럼(회장 박진기)은 6월 10일(수) 부산 롯데호텔에서 지역 중소기업 협·단체와 지원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제34회 이엉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출범한 이엉포럼은 부산지역 중소기업 협·단체와 유관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애로와 규제를 발굴하며, 정책 개선과 협력과제를 논의해 온 부산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소통 플랫폼이다.

또한 이엉포럼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현장 중심의 정책소통 창구로 기능하며, 25년에는 민관협력사업(전통시장 소비촉진 업무협약) 추진, 애로·규제 과제 발굴 및 해소(17건), 정책정보 공유(174건) 등의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34회 이엉포럼 개요 >

- 일시/장소: ’26.6.10.(수) 16:00~18:00 / 롯데호텔 밸뷰룸(42층)
- 참석자: (협·단체) 부산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부산울산지회 등 협단체장
  (유관기관) 부산중기청, 부산시청, 부산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장
-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정책 소개 및 애로·건의 간담회 등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이하 중진공)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동 정세와 환율 상승 및 물류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기업글로벌화(73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60억원) 등 부산지역에 편성된 추경예산 총371억원의 세부적인 자금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①고용 보조 혜택의 '성장 단계별 연장제' 도입 요청 ②지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상 지원대상 확대 등

박진기 이엉포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엉포럼은 부산지역 중소기업 협·단체와 지원기관을 촘촘히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장"이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부산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중기청은 이엉포럼이 지역 중소기업계의 대표적인 소통과 협력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사진은 18시경 별도 배포예정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호정 (051-601-5102)
		담당자	사무관	배소혜 (051-601-5103)
			주무관	최윤석 (051-601-51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